

대구도시가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 대구도시가스 이종무 사장(오른쪽 두 번째) 등 임직원들이 17일 대구 서구 원대동 대구쪽방상당소에서 쪽방거주인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

대구도시가스(사장 이종무)는 17일 김장철을 맞아 임직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 서구 원대동에 위치한 대구쪽방상당소에서 쪽방거주인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유난히 배추값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쪽방에 거주하는 소외 계층들에게는 김치 수급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대구도시가스는 소외계층의 힘겨운 겨울나기가 시작되는 초겨울에 대구지역의 쪽방지원 시민단체인 대구쪽방상당소와 연계해 나눔에서 답을 얻는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 김장나누기 행사를 갖게 됐다.

이번 행사는 농가와 직거래한 배추 400포기를 쪽방거주인과 주부봉사단(마음의 등불)이 배추를 가져와 다듬어 절이고, 직접 양념을 구입해 만들어 정성을 더하고, 대구도시가스 임직원들이 준비된 재료로 배추를 버무리고 알맞게 포장해 100여 곳의 쪽방에 김치를 배달하게 된다.

이날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이종무 사장은 “올겨울은 예년보다 추위도 빨리 오고 기초 생활물가도 비싸서 소외계층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이럴수록 나눔의 정신이 사회 각계각층에 널리 퍼져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외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대구도시가스는 전 임직원이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캠페인에 앞장서며 공익적인 지역발전 사업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전사적인 봉사단을 결성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